

〈 성전보수 기금마련을 위한 기도 〉

주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시며,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낙후된 성전을 위해,  
기도와 정성을 모아,  
성전 보수 기금 마련을 준비합니다.  
저희의 계획과 수고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며,  
이 길을 함께 걷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고단한 이민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의 평안으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금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저희의 정성이 모여,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보금자리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성전보수기금 약정/납부 현황

바오로딸콘텐츠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1	유스그룹	400	27	박재영	1,500	53	오석미	1,000	79	장종현	400
2	성모회	5,000	28	박정훈	1,500	54	오용운	2,000	80	전광수	1,000
3	Vesta-Oh LLC	5,000	29	박화성	1,000	55	오현주 (부제님)	12,000	81	정진오	1,000
4	강식	1,200	30	방숙자	400	56	우성현	1,000	82	조순자	300
5	곽신규	1,000	31	백상현	1,500	57	우영인	1,000	83	조인	1,000
6	곽율리안나	200	32	백영숙	1,000	58	유병기	3,000	84	채희백	5,000
7	김도용	500	33	변상민	1,000	59	육순재	3,000	85	최영옥	1,000
8	김삼식	1,000	34	변상원	1,000	60	윤석로 (부제님)	1,000	86	최영찬	2,000
9	김성일	1,500	35	변태용	4,000	61	윤준희	5,000	87	최완준	1,000
10	김수완	5,000	36	서경호	1,000	62	이기순	500	88	최승웅 (부제님)	5,000
11	김순옥	1,000	37	서정근	1,500	63	이막동	500	89	최진호	1,000
12	김안나	1,000	38	성낙순	500	64	이문식	1,000	90	최현지	2,000
13	김영필	2,000	39	성순영	500	65	이보현	1,000	91	추승호	1,000
14	김정숙	300	40	성준엽	1,000	66	이성문	1,000	92	토레스 은식	2,000
15	김태경	600	41	손경진	300	67	이용문	2,000	93	하건철	1,000
16	김진	1,000	42	손영렬	1,000	68	이용범 (신부님)	2,500	94	한상철	1,000
17	나채국	1,000	43	손영수	1,000	69	이재구	1,000	95	한크리스토퍼	1,000
18	나한복	1,000	44	손종철	3,000	70	이재서	1,000	96	허종	1,000
19	문형곤	100	45	손홍구	1,200	71	이종권	1,500	97	황분숙	500
20	민병집	2,400	46	신준호	1,200	72	이준원	100	98	황태진	1,000
21	박규희	300	47	안을봉	1,000	73	이호용	1,000	99	익명1	1,000
22	박기호	1,000	48	안청자	500	74	임문수	500	100	익명 2	100
23	박덕화	500	49	안현정	1,500	75	임성주	1,000	101	익명 3	20
24	박동준	300	50	양영길	1,000	76	임소라	100	102	익명 4	20
25	박락준	2,000	51	염기선	3,000	77	임영자	1,000	103		
26	박병태	1,200	52	오경숙	3,000	78	장수지	1,000	104	미국신자 (58)	87,860
약정금액: \$233,000/\$300,000 (77.67%), 납부금액: \$159,063/\$300,000 (53.02%)											

연중 제28주일

2025년  
10월 12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화-금 미사전 묵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edisonkcc@gmail.com  
근무시간: 수~금  
(10:30AM~4: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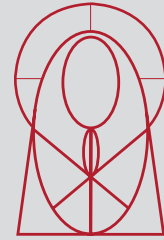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오현주 요한

은퇴/종신부제  
최승웅 미카엘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염기선 베드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 이번 주 전례안내 〉

# 제 1독서 열왕기 5,14-17

# 화답송 시편 98(97),1,2-3ㄱㄴ,3ㄷㄹ-4(◎ 2 참조)



후렴.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제 2독서 티모테오 2,8-13

# 복음 환호송 1 테살 5,18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 복음 루카 17,11-19

# 성가 입당 337 봉헌 215, 332 성체 156, 502 파견 77



★ 미사지향 (연미사)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오석건(안토니오) - 가족
- 오용덕(헨리코) - 가족
- 윤재은(베로니카) - 가족
- 성경숙(아가다) - 성안드레아
- 최준혁(베드로) - 최정인(아네스)
- 서경임(비비안나) - 가족
- 김명규 - 안현정(소화테레사)
- 방대권 / 방 도밍고 / 임베드로 김마리아 / 임막달레나 - 임안나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글라라) - 가족
- 김영필(안토니오) 김종화(아가다) - 가족
- 김정선(스텔라) - 카도녀
- 이수형(안드레아) 학사님을 위하여 - 김금자(유리안나)
- 변인순(엘리사벳) - 유미선(클라라)
- 한상철(빈첸시오) 한종매(안나) - 오데레사 김순옥(율리아) 유미선(클라라)
- 박정화(요셉) 박덕화(요안나) - 방숙자(마리요안나)
- 하건철(안토니오) - 가족
- 박지영(카타리나) 가족 - 부모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1,131(128명)
- 교무금.....\$2,250
- 최영옥(10) 최영찬(9~10) 염기선(9) 이호용(10)
- 전광수(9~10) 이종권(9~12) 박정훈(9~12) 임문수(10)
- 김영숙(9~10) 홍인선(9) 서영원(9~10)

★ 새로오신분, 방문해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를 환영합니다.

★ 원할한 주보 제작을 위해 미사 지향 신청 및 주보 공지 사항을 매주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 성당(채플)은 성체가 모셔져 있으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쥘워주세요.
-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 바닥 청소
-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단속 확인 바랍니다.
- 성당안의 가전제품이나 큰가구를 버릴시에는 반드시 사무실에 미리 상의해주세요.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건철(안토니오) 김영필(안토니오) 염은미(클라라)
- 곽 율리안나 김삼식(베드로)

★ 10월 빵과 포도주 봉헌

- 10/12 장에밀리아 이사라 10/19 최라파엘 이카타리나
- 10/26 오 토마스/로사

★ 친교 봉사 일정

- 10/19 이스트브런스워 11/16 피스브릿지 12/21 노스브런스워
- 1/18 럽거스 2/15 먼로 3/15 메타천+N에디슨 4/19 사우스브런스워
- 5/17 썸머셋 6/21 에디슨 7/19 올드브릿지

★ 로사리오성월(10월 매주 미사 30분전: 묵주기도와 지향)

- 둘째주(10/12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 세째주(10/19일): 모든 아픈이들을 위하여
- 네째주(10/26일): 믿지않는 이들을 위하여

★ 전례부 제대회 백영숙(헬렌) 자매님께서 추석미사를 위한 꽃바구니 장식하여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모회> 테네시 농작물 주문 받습니다. (담당자 최정원레지나, 917-583-2706)

★ 요셉회 모임

- 일시/장소: 10월12일 미사후 / 소회의실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장소: 10월 12일(주일) 미사후 / 친교실 대회의실

★ 레지오 마리에 야외행사

- 일시: 10월14일(화) 12시
- 장소: 성 요셉 슈라인( St. Joseph Shrine), Stirling, NJ
- 대상: 레지오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
- 준비물: 매일미사책, 묵주, 뗏세라(점심제공)

★ 반석회 모임

- 일시/장소: 10월 18일(토요일) 낮 12시/ 성당친교실
- 백영숙(헬렌) 우선자(이레네) 이순분(발바라) 자매님 점심제공
- 감사합니다.

★ 전례분과 월례회의

- 일시/장소 : 10월19일(주일) 미사후 / 친교실

★ 요셉회와 함께하는 2026년도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성지 순례단 모집

- 일시: 2026년 2월 2일(월) ~ 2월 6일(금) 4박5일
- 지도신부: 본당 이용범 사도요한 신부님
- 문의: 곽 엘리사벳(908-420-8386), 이서형 요안나(732-609-2904)



★ 제1독서

열왕기 5,14-17

그 무렵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알려 준 대로, 요르단 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나병 환자인 그는 어린아이처럼 새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 종이 드리는 선물을 부디 받아 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모시는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결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그래도 나아만이 그것을 받아 달라고 거듭 청하였지만 엘리사는 거절하였다. 그러자 나아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나귀 두 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이 종에게 주십시오. 이 종은 이제부터 주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2독서

티모테오2,8-13

사랑하는 그대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견디어 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니 그러한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루카 17,11-19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나?”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묵주기도 성월기도 >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